

프랑스 정보기관의 동향

1. 서 언

1985년 7월 10일 프랑스 국방성 대외보안 총국(DGSE :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 소속 요원이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선박이 뉴질랜드 오크랜드에 정박중이던 때 폭파, 침몰 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당국에 체포 되고 조사결과 DGSE의 조직적 관여가 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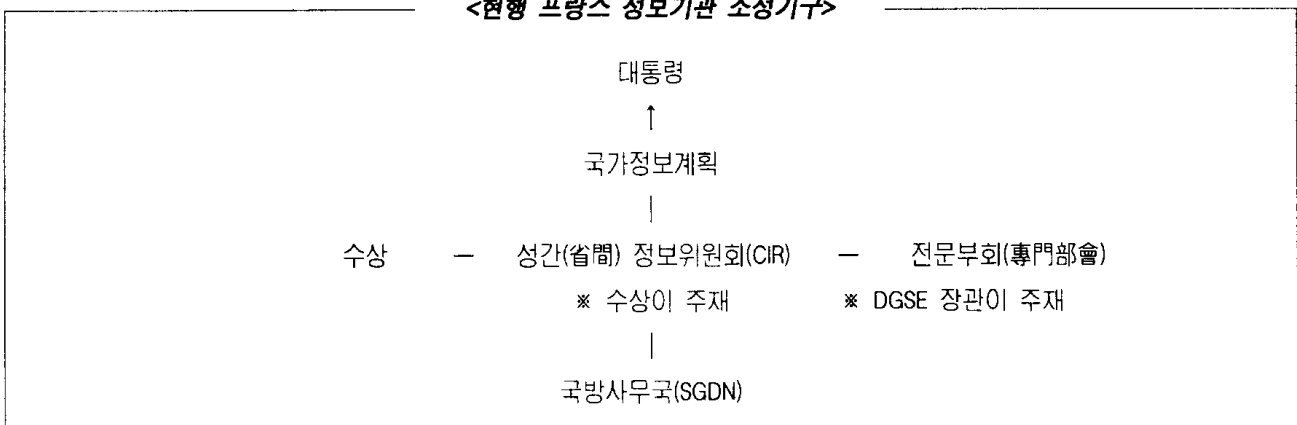
나 라코스트 DGSE장관이 경질되고 엘루뇨국방상이 사직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정보기관의 존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한편 정부내에 정보조직의 개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985년에 정보기관의 분산과 연계 없는 독자적 활동이 문제화

이 정보기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

<현행 프랑스 정보기관 조정기구>



게 거론된 것은 지금까지 국방성 및 내무성에 분산되어 상호 연계가 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온 정보조직을 통합하고 또한 통일된 정부의 의지에 따라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었으나 논의에 그치고 유야무야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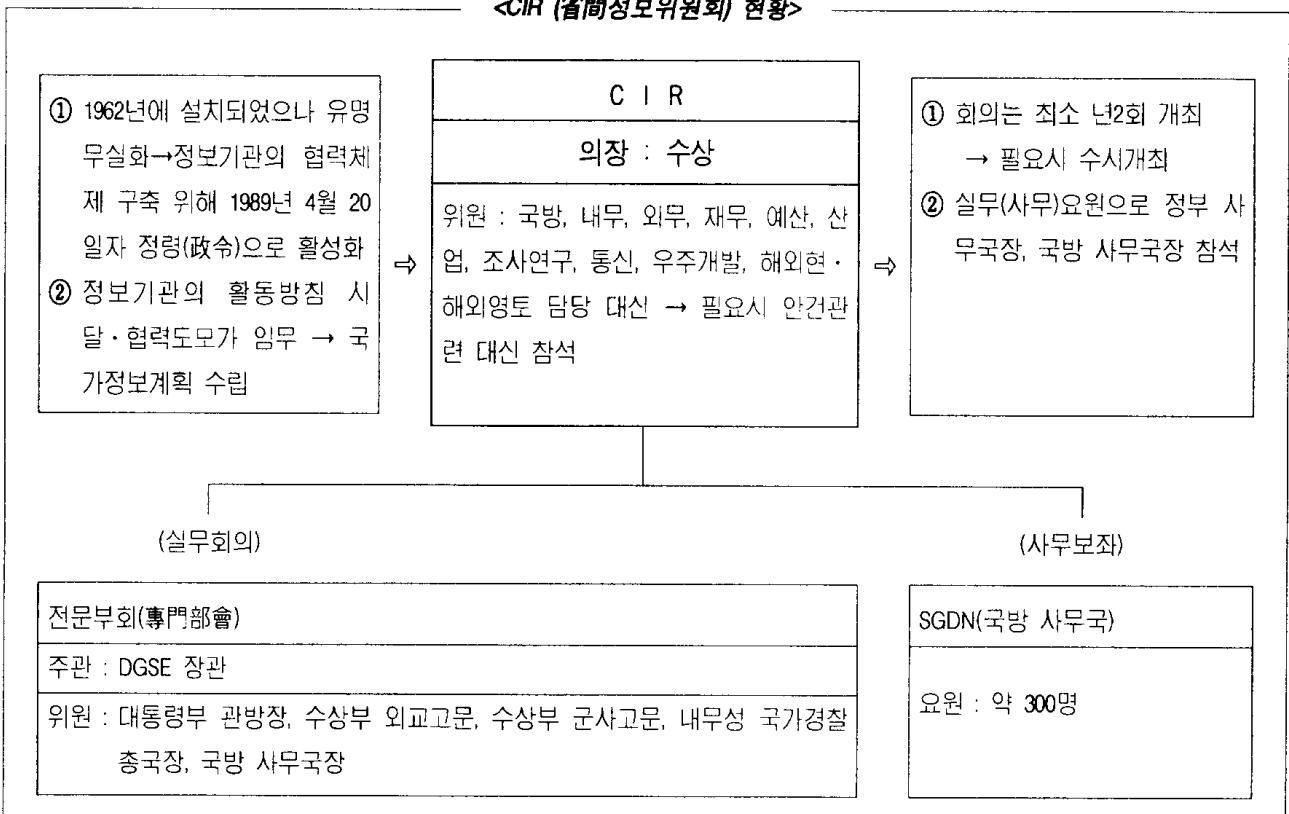
1988년에 수상실 보안담당 참사관을 신설하고 성간(省間)정보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문제해결 시도

1998년에 이르러 당시 로카스수상 관방(官房)에 보안담당 참사관(Conseiller pour la sécurité)을 신설하여 정보기관 개혁방안을 모

색하였으며 이 개혁의 일환으로 1962년에 설치되었으나 그 이후 기능정지상태에 있던 성간(省間)정보위원회(CIR : Comité interministériel du renseignement)의 활성화가 도모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4월 20일자 정령(政令) 제89-258호『성간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의 규정에 관한 건(件)』에 의하여 CIR의 임무는 「정보관련 관계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대강(大綱)의 방침을 시달하고 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정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었다.

<CIR (省間정보위원회) 현황>



CIR은 수상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최소한 연2회 개최되고 수상이 의장으로서 국방, 내무, 외무, 재무, 예산, 산업, 조사연구, 통신, 우주개발, 해외현(海外縣)·해외영토 담당 대신이 출석하며 필요시 관련 기타 각료도 출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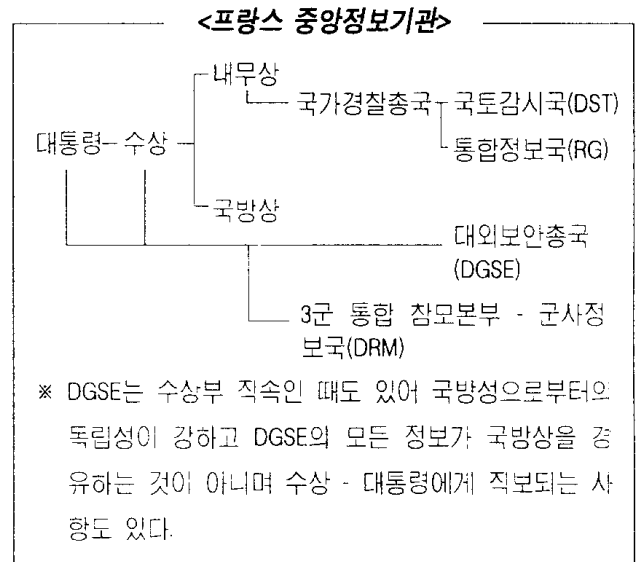
사무처리를 위하여 정부 사무국장과 국방 사무국장이 출석한다.

또한 CIR에는 전문부회(專門部會)도 설치되어 DGSE장관 주최의 사무레벨 회의가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부 관방장, 수상부 외교고문, 수상부 군사고문, 내무성 국가경찰 총국장, 국방 사무국장 등이 출석하고 있다.

CIR은 국방사무국(SGDN :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éfense nationale)이 보좌하며 SGDN에는 300명 이상의 일반직과 군인이 근무하고 있다.

CIR에서 의결한 국가정보계획(Plan national de renseignement)의 실례로는 1990년 1월 당시 미테랑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① 비합법 국제자금의 유통, ② 중근동의 동향, ③ 구 동구권의 새로운 동향, ④ 국내 소수민족·종교집단의 동향 ⑤ 과학기술분야, ⑥ 정보통신의 도·감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정보기관의 동향



가. 국토감시국(DST)

사법조사통감부(1899)→국토감시통감부(1934)→국토감시국(1944)으로 변천

DST(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의 전신인 내무성 사법조사 통감부(Contr le général des services de recherche judiciaire)는 드레퓔스사건으로 위신이 실추된 군 정보기관을 경찰에 의해 보완하기 위하여 1899년 5월 1일 신설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방첩도 관장하였다.

1934년 6월 13일 내무성 사법조사 통감부는 국토감시 통감부(Contr le général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로 개편되어 국경 경비와 통신감청을 분장하게 되었고 1944년에 국토감시국이 되어 현재의 중앙조직과 방

<DST (내무성 국토감시국) 현황>

[연혁]

- ① 1899년 5월 1일 내무성 사법조사 통감부 신설 → 제1차 대전 전에는 방첩도 관장
- ② 1934년 6월 13일 내무성 사법조사 통감부를 내무성 → 국토감시 통감부로 개편 → 국경경비와 통신감청 분장
- ③ 1944년 내무성 국토감시 통감부를 내무성 → 국토감시국으로 개편 → 현재의 중앙·지방조직 골격 형성

[임무] - 프랑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의 조사·예방·진압

[조직]- 비밀정령(政令)으로 규정

- ① 본부는 방첩부, 방호·보안부, 테러대책부, 전기통신경찰부외 관리부서로 구성
- ② 중앙조직 외에 방위관구 및 해외 현·해외영토별 지방조직 운영
- ③ 정원은 약 1,500명으로 추정

위관구 및 해외현·해외영토별 지방조직 (secteur)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국토감시국의 임무는 프랑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의 조사·예방·진압

1982년 12월 22일자 정령(政令) 제82-1100호에 의하면 DST의 임무는 「프랑스공화국의 영토내에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교사·기도·지원된 프랑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예방하며 진압하는 것」이다.

DST의 조직과 인원은 비밀정령으로 규정된 국가비밀이며 중앙조직은 관리부문 외에

- ① 외국의 첩보활동을 담당하는 방첩부, ② 첨단 기술정보의 보호 및 무기확산문제를 담당하는 방호·보안부, ③ 배후에 국가가 관여하는 테러리즘을 담당하는 테러대책부, ④ 위법통신의 단속을 담당하는 전기통신경찰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원은 약 1,5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DST의 업적 중 유명한 것은 ① KGB의 과학기술정보 수집부서인 T국 요원 페어웰(Farewell)을 포섭하여 KGB의 과학·산업스파이계획을 입수, 1983년 4월에 소련외교관 47명을 강제추방시킨 사건, ② 1975년 6월 DST소속 경찰관 2명을 살해한 국제테러리스트 카르로스를 1994년 8월 수단에서 체포한 사건이다.

나. 통합정보부(RG)

현 특별경시(1811) 통합정보부(1944)로 변천, 제1제정기(帝政期)에 「황제는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령에 따라 1811년 3월 25일자 정령(政令)으로 각 현(縣)에 특별경시(Commissaire spécial)가 파견되어 현재

<RG(내무부 통합정보부)현황>

[연혁]

- ① 1811년 3월 25일 각 현(縣)에 특별경시 파견, 일반정보경찰업무 관장 → 경찰청(⇒ 현재의 국가경찰총국) 기록부가 지휘하였으며 통합정보부의 전신
- ② 1941년 4월 23일자 경찰재편법으로 통합정보부(RG) 신설

[임무]- 정치·경제·사회질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

- ①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
- ② 국가가 개입한 테러리스트 및 직접행동주의자와 그 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보공작
*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조사통계실(OCSS)은 RG 방계조직으로 추정

[조직]

- ① 중앙조직은 관리부문 외에 분석·종합과, 테러·공작담당 조사과, 경마·도박과로 구성
- ② 지방조직은 8개 방위관구 - 22개 지역권 - 103개 현에 국을 설치
- ③ 정원은 1983년 1월 1일 현재 3,788명

의 RG(Renseignements généraux)의 소관사 무인 일반정보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별경시는 당해 현의 정보경찰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관선지사(Pr fet)와 경찰청(Direction de la séret générale ⇒ 현재의 국가경찰총국) 기록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이것이 통합정보부의 전신이며 1941년 4월 23일자 경찰재편법 제3조에 의하여 통합정보부(RG)가 탄생하였다.

정부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질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이 임무

1974년 5월 14일자 내무성령 제6조는 「중앙통합정보부는 정부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질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을 담당

한다」고 규정하고 1976년 3월 19일자 국가경찰총국장 훈령은 「정보부문은 국내의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RG의 임무는 ①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 ② 국가가 개입한 테러리스트 및 직접 행동주의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보공작이다.

조직은 크게 중앙통합정보부와 지방국으로 구성되며 중앙 통합정보부는 관리부분외에 ① 정치·경제·사회관련 정보의 분석·보고를 담당하는 분석·종합과, ② 테러대책·정보공작 등을 담당하는 조사과, ③ 카지노·경마의 감독을 담당하는 경마·도박과가 있으며 지방 조직으로는 8개 방위관구 - 22개 지역권 -

103개 현에 국(direction)이 설치되어 있다.

정원은 1983년 1월 1일 현재 3,788명이다.

또한 선거 때마다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여론조사통계실(OCSS : Office central pour les sondages et les statistiques)도 RG와의 관련이 깊은 조직으로서 중앙정부선거시에는 4,000개,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400개의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G의 중점대상은 프랑스공산당(1950년대) → 알제리아 민족해방전선·비밀무장조직('60년대) → 극좌세력('70년대) → 테러리즘('80년대) → '90년대는 목표 모호

RG의 정보활동대상은 그 중점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프랑스공산당, 1960년대에는 알제리아 독립과 관련된 FLN(Front libération nationale : 알제리아 민족해방전선)과

OAS(Organisation armée secrete : 비밀무장조직), '70년대에는 극좌세력, '80년대에는 Action Direct 등의 테러리즘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변화되어 왔으나 근년에는 그 목표가 상실되었다고 정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94년 7월 파리경시청 통합정보부 수사요원이 비공개의 사회당 전국회의에 잠입하여 의사진행사항을 도청한 사실이 노출되어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빠스크와

내무·국토정비상은 RG의 정당 및 언론에 대한 정보활동(視察)과 정치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정보활동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도시폭력, 극좌·극우그룹, 사회문제 분석·평가에 대한 정보활동으로 돌리는 조치를 시사하였다.

다. 대외보안총국(DGSE)

제2차 대전전 비밀조직+레지스탕스 「행동정보중앙국」으로 1946년에 국외정보 관리·방첩부(SDECE) 창설 → 1982년 4월 대외보안총국(DGSE)으로 개칭

DGSE(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의 전신인 국외정보 관리·방첩부(SDECE : Service de documentation extérieure et de contre - espionnage)는 레지스탕스조직인 자유프랑스의 행동정보중앙국(BCRA : Bureau central de renseignement et d'action)과 제2차 세계대전전의 비밀조직을 모체로 1946년에 발족하였으며 1982년 4월부터 대외보안총국이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임무는 국외의 첩보·파괴활동과 정보의 종합·분석

DGSE의 임무는 국외에서의 첩보·파괴활동 및 정보의 종합·분석이며 action homo - 국외에서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인물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는 것 - 도 포함

<DGSE(국방성 대외보안총국 현황)>**[연혁]**

- ① 1946년 레지스탕스 조직 자유프랑스의 행동중앙정보국(BCRA) + 제2차 대전전 비밀조직⇒국외정보관리·방첩부(SDECE) 창설
- ② 1982년 4월 대외보안총국(DGSE)으로 개칭

[임무] - 국외에서의 첩보·파괴활동과 정보의 종합·분석

- ① 전략부, 정보부, 작전부, 기술부로 구성
- ② 정원은 일반직 포함 약 3,200명
- ③ 예산은 1992년의 경우 9억 5,000만 프랑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GES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비밀이어서 비밀정령(政令)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부문 외에 ① 중장기 정보전략을 수립하는 전략부, ② 정보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정보부, ③ 특수부대(제11 긴급공정부대)를 지휘하는 작전부, ④전략 SIGINT를 개발·관리하는 기술부로 되어 있고 정원은 일반직을 포함하여 약 3,2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도에 시작된 국방 5개년계획 초년도에 그 전년도까지 7억 5,000만 프랑이었던 DGSE 예산이 일년에 2억 프랑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시설·장비비는 3억 2,000만 프랑에서 4억 5,000만 프랑으로 증가되어 예산의 중점이 전자공학장비의 충실, 암호화, 약 100명의 분석전문가의 고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 군사정보국(DRM)

걸프전의 군사정보 대미의존 반성, 3군의 참모본부 제2과 + 군사정보분석센타 + 전자자기정보센타 + 엘리오스 화상분석센타 + 3군 정보어학학교를 통합 ⇒ DRM

DRM(Direction du renseignement militaire)은 걸프전 당시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여야만 하였던 정보의 심각한 부족상태에 대한 반성이 일게 되었고 국방성내 전술정보조직의 재편이 도모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6월에 3군의 참모본부 제2과(정보담당), 구 군사정보분석센타(CERM: Centre d'exploitation du renseignement militaire), 전자자기정보센타(CIREM: Centre d'information sur le renseignement électromagnétique), 엘리오스(Hélios)화상분석센타, 3군 정보어학학교를 통합하여 DRM을 신설하였다.

◁DRAM(3군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국)현황▷

[연혁] - 1992년 6월 3군의 참모본부 제2과+구 군사정보 분석센터(CERM)+전자자기정보센터(CIREM)+H lios 화상분석센터+3군 정보어학학교를 통합 ⇒ DRAM 창설

[임무] - 군사개입 전단계 정보수집 → 분쟁발생시 정보제공 → 군사개입시 정세분석·보고

[조직]

- ① 3군 통합참모본부장 지휘하에 관리부문의 분석과·조사과·기술과·군비관리과·3군 정보어학학교로 구성되며 육군정보부대·제13 긴급공정부대, 전파위성사진 수신센터도 관리
- ② 직원은 일반직 포함 약 500명
- ③ 예산은 1994년도의 경우 2억 4,300프랑

군사개입 전단계시 : 정보수집 → 분쟁발생시 : 정보제공 → 군사개입후 : 정세분석·보고가 의무

DRM의 임무는 ① 군사개입 전단계의 정보수집으로서 이것은 프랑스의 안전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지역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여 실행 가능한 목적 하에서 복수의 개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② 분쟁 등의 발생시의 정보제공으로서 이것은 분쟁·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지역, 어떠한 위협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적시적절하게 의사결정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③ 군사개입상황의 의지결정기관에의 보고 및 사후의 정세분석이다.

DRM과 DGSE의 임무의 차이에 대하여 DRM 초대국장 엔리크(Heinrich) 장군은 「DGSE는 국제법의 적법성을 초월한 특수수단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인 조사활동으

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DGSE는 분쟁이나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대하여 DRM은 위기가 현재화한 단계에서 위성정보 또는 주재무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정보에 의거하여 정세를 분석·검토한다. 나아가 분쟁이 현실화한 단계에서는 DESE는 보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관심을 갖으나 DRM은 전술정보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DRM은 3군 통합참모본부장의 지휘하에 있으며 관리부문 외에 ① 분석과, ② 조사과, ③ 기술과, ④ 군비관리과, ⑤ 3군 정보어학학교로 구성되며 정원은 일반직을 포함하여 약 500명이고 그 가운데 약 200명은 통합전 조직의 직원들이다.

DRM은 육군정보부대(멧스), 제13 긴급공정부대(디우즈), 전파 위성사진 수신센터를 지휘하에 두고 있으며 예산은 1994년도의 경우 통상경비 2,300만 프랑, 장비·시설비 2억

2,000만 프랑이 계상되어 있다.

3. 과학기술정보 수집동향

가. SIGINT

DGSE · DRM 중심으로 활동 정보수집함도 보유했다.

SIGINT 수집시스템은 DGSE, DRM에 각각 소속되어 있으며 지상국(地上局) · 항공기 외에 DGSE는 이자르(Isard)라는, DRM은 베리(Berry)라는 정보수집함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건조된 Isard는 흰색으로 배수량은 500t이고 헬기, 무기 · 탄약의 탑재가 가능하며 최신 전자공학을 응용한 도 · 감청장치가 장치되어 지상국 및 항공기(C160)와의 연계 · 공동작전을 할 수 있다.

나. PHOTINT

'80년대에 Télécome 1에 의해 6기 발사 · 운용

'90년대에 Télécome 2에 의해 3기 발사 · 운용

프랑스의 정지위성계획은 1975년에 텔레코므 1(Télécome 1)로 결정되어 T Télécome 1A(1984), 1B(1985), 1C(1988)의 3기를 민수용 위성으로 띄웠으며 이와 같은 시기에 군사용 정찰위성 시라큐즈(Syracuse) 1A, 1B, 1C를 띄웠고 그 이후 1988년에 결정된 Télécome 2로는 Syracuse 2A(1991), 2B(1991),

2C(1992)를 발사 · 운용하고 있다.

Syracuse의 분해능(分解能)은 10m로서 유럽 · 아메리카대륙 · 인도양 · 대서양을 대상영역으로 하고 있으나 우측 정찰영역은 태평양 지역까지 미치고 있으며 수신 지상국 수는 Syracuse 2의 단계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함선 · 잠수함 · 차량적재에 의하여 기동성이 보다 제고되었고 1996년까지 새로이 60개 정도의 지상국을 개설한다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1996년까지의 국방 5개년계획상 지상국 설치 관련 예산총액은 100억 프랑이 넘으며 초년도에 17억 8,000만 프랑이 집행되었다.

군사정찰위성계획은 1977년에 개시 1995년 7월 엘리오스(Hélios)1 발사 · 운용

프랑스의 군사정찰위성계획은 1977년 관할 분석 군사위성(SAMRO : Satellite militaire de résolution optique) 계획으로 개시되었으며 당해 계획의 예산 5억 프랑 중 약 30%가 정지위성개발에 투입되었다.

1986년에 군사정찰위성계획 엘리오스(Hélios) 1이 개시되었으며 이 계획에는 이태리(투자비율 14%) · 스페인(투자비율 6%)이 참여하였고 Hélios 1은 1995년 7월 크레에 소재한 유럽우주기구(ESA)의 발사대에서 아리안 4형 로켓으로 발사되었으며 총중량은 2.4t으로서 지상 800~900km 정지궤도를 돌며 분해능(分解能)은 1m이고 수명은 4~5년이다.

엘리오스 시스템은 ① 2기의 위성, ② 토루

즈의 위성 콘트롤센터, ③ 코르마르·레즈·카나리아군도에 위치한 화상수신센터, ④ 크레이유(DRM)·토르존느·로마에 위치한 화상분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리오스계획 관련 프랑스의 총예산은 78억 프랑이 넘으며 1992년에 그 가운데 13억 프랑이 집행되었다.

또한 엘리오스는 전자(電子)·정보를 수집하는 ELINT기능도 지니고 있어 적국 레이더의 성능 및 특징을 식별하고 통신방해(Jamming)에도 저항력이 있다.

군사위성계획은 1992년~2007년(15년)의 장기계획 엘리오스 외에 레이더위성·감청위성·통신위성도 계획

프랑스의 군사위성계획은 1992년~2007년 간의 15년에 걸친 장기계획으로서 동 계획의 중점은 ① 정찰·감청·전기통신·지상에서

부터 우주까지의 감시를 종합·일관화한 시스템의 구축, ② 계획에의 다른 유럽국가의 참가유도에 두고 있으며 추가로 2번째의 엘리오스를 발사·운용할 경우 정보수집시간이 단축되어 전술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에는 엘리오스 2 계획이 시작되고 동 위성에는 적외선 화상시스템이 탑재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시기에 레이더 위성 오시리스(Osiris), 감청위성 제논(Zénon), 통신위성 우미르사트콤(Eumilsatcom)도 발사하여 계획을 완료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위성을 식별하고 프랑스위성에 대한 위협을 발견하기 위하여 지상 감시시스템도 연구·개발하고 있다.